

Digital & IT

불 붙은 스마트폰 전쟁

‘아이폰’ 상륙에 ‘제트’ 출격

〈애플〉

〈삼성〉

애플, 값 싸고 속도 배로 올려 국내시장 노크

삼성·LG, 최첨단 기능 탑재 글로벌 공략 시동

값은 싼데 빨라진 ‘아이폰’이 나오자, 곧바로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삼성 제트’가 출시됐다. 애플(Apple)이 전세계 최고 히트상품인 아이폰을 100달러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 국내 상륙이 예정되면서 삼성전자가 등 국내 업체들도 잇달아 고성능 휴대전화를 내놓고 있다. 이른바 ‘폭풍의 휴대전화’ ‘스마트폰 전쟁’이 터졌다.

애플 신형 스마트폰 공개= 애플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에서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3GS’를 공개했다. 외관은 현재 아이폰(3G)과 유사하지만 내부구조가 달라졌고, 속도의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구동 속도가 2~3배 빨라졌으며 이메일 첨부 파일도 빠르게 열

수 있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지금보다 2배가량 빨리 돌릴 수 있다. 영상 녹화와 편집 그리고 공유 기능도 제공한다.

애플은 이 신형 아이폰 16GB 제품을 약정 및 보조금 적용 시 199달러, 32GB 제품을 299달러로 책정했다. 종전보다 속도와 용량이 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구형 ‘아이폰3G’ 8GB 제품은 99달러에 판매된다.

삼성전자의 반격= 아이폰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앞다투어 최신 기능을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런던, 싱가포르, 두바이 등 3개국에서 가진 글로벌 전략폰 발매 행사에서 신개념 풀 터치스크린폰 ‘삼성 제트(S8000)’를 선보였다.

제트는 3.1인치 WVGA(800×



〈애플 아이폰〉

〈삼성 제트〉

480) 능동형 유기다이오드(A-MOLED)를 탑재해 기존의 화질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 또 DVD급 화질의 동영상 녹화·재생, 고화질 동영상포맷, 5.1채널 입체음향 등 최고의 화질과 음향을 제공한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최대 5개의 인터넷 창으로 동시 웹서핑과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가격과 국내 출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LG전자는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S클래스 UI’를 내장한 ‘아레나폰’이 기대된다. ‘S클래스 UI’는 별도 학습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슈나이더 인증 500만

화소 카메라 ▲8GB 내장메모리(국내 외장메모리 4GB 기본 제공) ▲외장메모리 슬롯 ▲GPS 등을 갖췄다. 오는 20일께 출시 될 예정되며 가격은 70만원대.

전문가들은 기능면에서는 삼성 ‘제트’나 LG ‘아레나폰’이 앞서지만 가격이나 브랜드 인지도에서 ‘아이폰’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이폰’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 전자파적합등록(KCC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출시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

진월·월산 ‘리더스 하이’ 파격 재분양

해주주택건설 2년 전보다 최고 6,500만원 ↓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분양가 내리기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판촉에 나섰다.

해주주택건설은 19일부터 광주시 남구 진월동과 월산동의 ‘리더스 하이’ 아파트의 잔여 세대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가를 2년 전에 비해 최고 6천500만원이나 내린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광주에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잔금 유예 및 대출 이자 대납·입주 지원금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 할인 방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월동 리더스 하이(129세대)는 전용면적 133.86㎡(49평형·84세대)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분양 당시 3억9천900만원(기준층)의 분양가가 책정됐으나 3.3㎡당 114만원이 내린 3억3천900만원으로 조정됐다. 2년 전보다 5천700만원이나 떨어진 것.

전용면적 147.45㎡(56평형·30세대)와 147.85㎡(56평형·15세대)도 2년 전 분양가보다 각각 6천100만원이 내린 3억9천100만~3억9천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월산동 리더스 하이(총 281세대)도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낮춰 재분양에 돌입했다.

전용면적 84.89㎡(35평형·172세대)는 2년 전 책정된 분양가 2억4천100만원(기준층)보다 4천400만원 내린 1억9천700만원으로, 117.29㎡(43평형·67세대)의 경우 3.3㎡당 130만원이 내렸다. 가격이 5천700만원이나 떨어져 분양가는 3억3천800만원에서 2억8천100만원으로 조정됐다.

126.22㎡(46평형·40세대)는 3.3㎡당 138만원이 내려 인하 폭이 가장 컸다. 3억6천600만원인 분양가는 무려 6천500만원이나 내린 3억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외 183.13㎡(67평형·2세대)도 당초 분양가(4억8천600만원)보다 5천100만원이 내린 4억3천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노에너지 비해 태양광발전소

이사벨라 주정부와 20MW 규모 투자 협약



태양에너지 전문기업 이노에너지가 필리핀에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한다.

이노에너지는 17일 광주 상무지구 내 라마다광주호텔에서 필리핀 이사벨라 주정부와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이노에너지측 김기열 회장과 임영 대표이사, 정구철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필리핀 이사벨라주에서는 에드윈 하

원익원과 레이먼 레이즈 부주지사, 요엘 비고나 이사벨라주 전력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이노에너지측은 기술을 제공하고 이사벨라주는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업에 필요한 2천억원의 투자자금은 제3의 투자사인 델라모어그룹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노에너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7천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임영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자체 생산하는 화합물막막 전지계열(CIS2) 태양전지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주에 CIS2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계경영연구원

광주 클래스 개강

광주·전남 기업인 대상

세계경영연구원(IGM)은 광주·전남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IGM 지식클럽’ 광주 클래스를 개강한다고 17일 밝혔다.

IGM 지식클럽은 재학생 700명 규모의 최고경영자(CEO)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5개 클래스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 클래스는 18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정태영 현대캐피탈 및 현대카드 대표의 특강으로 시작된다. 문의 02-2036-832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ukje Bocheonggi'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K2' (K2) featuring a green banner with text about a competition and various smaller text blocks.